

# 이성해 대광위원장, “지속 가능한 광역교통 투자전략 수립해야”

## - 12일 수도권 북부권(의정부시, 양주시) 광역교통 개선방안 논의 -

□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5월 12일(금) 오후 3시 의정부 경전철 현장을 방문한 후 의정부시 버스 공영차고지 회의실에서 의정부시 및 양주시 광역교통 현안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“수도권 북부권 광역교통정책 간담회”를 개최하였다.

\* 의정부 및 양주시 교통관계자,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(LH) 참석

□ 먼저, 이 위원장은 곤제역에 방문하여 경전철 관계자로부터 운행현황, 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열차에 탑승하여 서비스 수준 등을 점검하였다.

○ 점검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“이번 김포 사례를 계기로 의정부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, 특히 혼잡이 심해지는 출퇴근 시간에는 더욱 유의하여 관리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이후, 의정부시 내 버스공영차고지로 이동한 후 간담회를 시작하면서, 이 위원장은 “의정부나 양주는 수도권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그동안 진행된 개발사업 건수가 적고, 개발사업 규모도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된 만큼, 광역교통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”면서,

○ “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편의를 보다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광역교통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”라고 밝혔다.

□ 이후, LH 및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의정부 및 양주시 내 개발사업 현황과 지역별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개별 사안별 토론을 진행하면서,

○ 이 위원장은 “의정부 경전철 사업의 경우 과다 수요예측으로 인해 대외 비판이 많았던 사업이었으나, 수요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단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또한, 양주시에 대해서는 “지난 4월 17일 발표한 광역교통 보완대책에 양주시가 건의한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 확충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만큼 차질 없이 발표한 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”고 당부하였다.
- 간담회를 마치면서 이 위원장은 “한정된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, 지속 가능한 광역교통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면서,
  - “각 지자체에서 주민 의견수렴, 지역 현황 조사, 국가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광역교통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, 대광위도 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밝혔다.
- 한편,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구리시 및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주요 권역별 지역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,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에 대해 지자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, 연구기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.

2023. 5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